

올해 건설자재 수급 전망과 건설 임금 분석

- 건축 자재 수요 늘었지만 토목은 감소, 숙련인력 부족으로 임금 상승 지속 -

최은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kcic21@cerik.re.kr

지난해 건축 자재 수요 상승, 토목은 감소

레미콘, 철강재, 시멘트, 골재, 콘크리트 등 주요 건설자재 8개에 대한 2016년도 수급 전망이 발표¹⁾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인해 레미콘, 시멘트, 타일 등이 수요량에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나 올 해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자재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레미콘과 철근의 수요량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특히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였던 2015년의 경우

레미콘은 전년 대비 9.5%가 증가한 1억 4,940만^m³, 철근은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1,086만톤을 기록하였다.

콘크리트 파일과 타일도 2014년에는 전년 대비 10% 정도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 정도가 늘어났다. 콘크리트 파일과 타일의 지난해 수요 실적은 각각 790만톤, 1억 3930만^m³를 기록하였다. 특히, 양변기의 경우 최근에 가장 큰 수요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1.6%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6%가 늘어났다.

시멘트와 합판도 지난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전년 대비 약 4%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건축 자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난해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반면, 토목사업과 관련이 있는 형강과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다른 건축 관련 자재에 비해 2015년에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토목 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형강은 2014년에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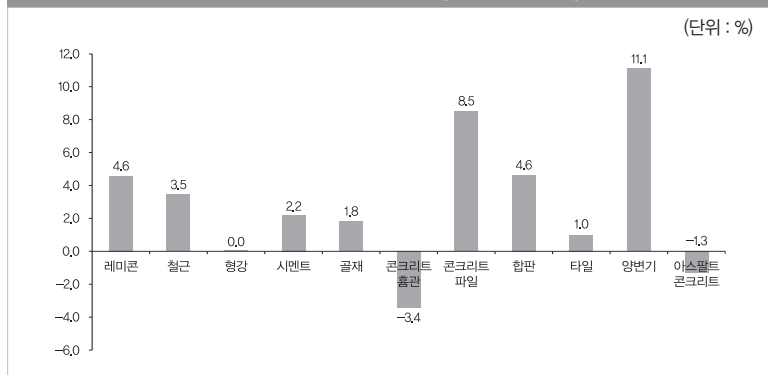
1) 본고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말 발표하는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중 주요 8개 건설 자재의 수요 실적 및 전망치에 초점을 둠(공급 실적 및 전망치의 경우 수요 데이터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임).

최근 5년 간 8개 건설자재 수요 실적 및 2016년 수요 전망

구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망치)	
레미콘	만 ³	12,111	12,827	13,840	13,640	14,940	15,160	
철강재	철근	만톤	925	959	962	1,002	1,086	1,096
	형강	만톤	612	629	626	641	608	613
시멘트	만톤	4,909	4,709	5,422	5,323	5,526	5,475	
골재	만 ³	19,284	20,111	20,118	20,142	20,545	21,086	
콘크리트	흡관	만톤	125	123	100	101	107	105
	파일	만톤	522	676	670	747	790	785
합판	만 ³	173	186	200	205	213	217	
타일·양변기	타일	만 ³	11,406	11,078	11,553	13,144	13,930	11,986
	양변기	만조	240	208	225	431	520	407
아스팔트 콘크리트	만톤	1,600	1,400	1,350	1,600	1,550	1,5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연도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

건설자재의 연평균 성장률(2011~2016년)



2011~2016년까지의 연도별 증감률

구분	2012년 증감률	2013년 증감률	2014년 증감률	2015년 증감률	2016년 증감률	
레미콘	5.9	7.9	-1.4	9.5	1.5	
철강재	철근	3.7	0.3	4.2	8.4	0.9
	형강	2.8	-0.5	2.4	-5.1	0.8
시멘트	-4.1	15.1	-1.8	3.8	-0.9	
골재	4.3	0.0	0.1	2.0	2.6	
콘크리트	흡관	-1.6	-18.7	1.0	5.9	-1.9
	파일	29.5	-0.9	11.5	5.8	-0.6
합판	7.5	7.5	2.5	3.9	1.9	
타일·양변기	타일	-2.9	4.3	13.8	6.0	-14.0
	양변기	-13.3	8.2	91.6	20.6	-21.7
아스팔트 콘크리트	-12.5	-3.6	18.5	-3.1	-3.2	

주 : 전년 대비 증감률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1%가 감소한 608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2014년에 18.5%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3.1%가 감소한 1,550만톤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 간 자재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양변기가 11.1%로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콘크리트 파일이 8.5%, 레미콘과 합판이 4.6%, 철근이 3.5%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 흡관과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마이너스(-) 성장률인 것으로 나타나 토목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도 건설 자재별 혼조세는 지속될 듯

이처럼 건설 자재는 어떠한 공종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수요에 차이를 보였는데 금년에도 자재별로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주택시장의 경기 호조 지속이 예측됨에 따라 레미콘은 1.5%, 철근은 0.9%가 상승해 올해와 비슷한 수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정부의 SOC 투자 예산 감소로 토목 경기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시멘트는 0.9% 감소한 5,474만톤,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3.2%가 감소한 1,500만톤의 수요량이 전망되었다. 특히, 관급공사 의존도가

큰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2015년 3.1%가 감소한 데 있어 또 다시 하락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타일과 양변기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요량이 급증하였지만 2016년에는 타일이 14%, 양변기가 21.7%로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 전년 동기 대비 6.3% 상승

2016년 자재별 혼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전체 117개 직종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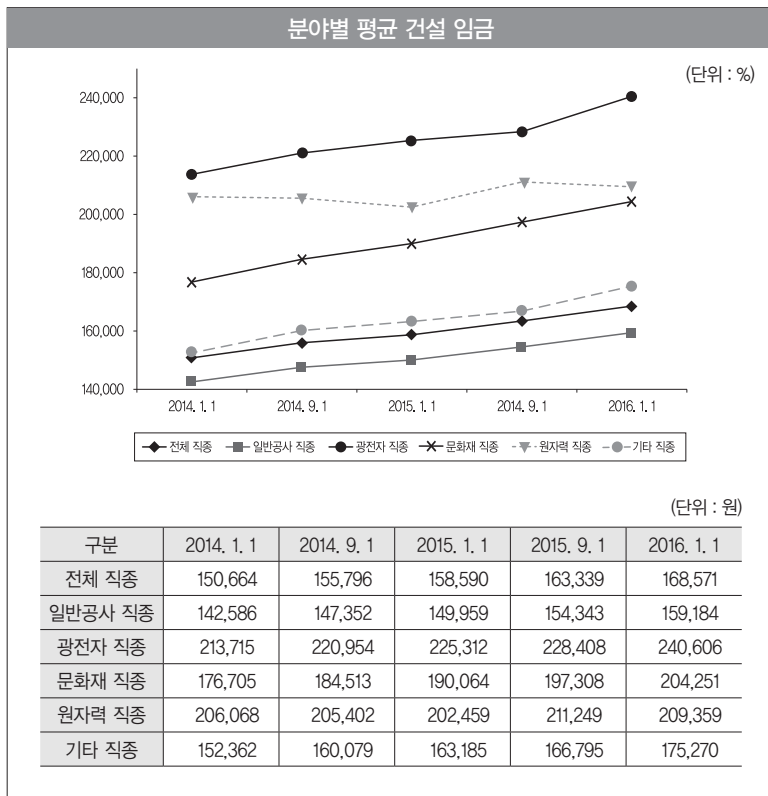
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²⁾는 전년 하반기(2015년 9월 1일) 대비 3.2%, 전년(2015년 1월 1일) 대비 6.3%가 증가한 16만 8,57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광전자 직종이 전년 하반기 대비 5.3% 상승한 24만 606원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기타 직종이 전년 하반기 대비 5.1% 상승한 17만 5,270원을, 문화재 직종은 전년 하반기 대비 3.5%

상승한 20만 4,25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 직종은 전년 하반기 대비 3.1% 상승한 15만 9,184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원자력 직종의 경우 전년 하반기 대비 0.9% 하락하여 20만 9,35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숙련인력 양성 필요

민간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정부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부정적 측면으로 2016년은 건설 자재별 혼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게다가 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으로 노임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건비 상승과 시장 수급에 따른 자재별 편차는 공사 종류별 원가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 자재의 안정적 수급 방안 모색과 건설 현장의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주 : 2010년 1월 1일자 공표 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 수(145→117개)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 임금과 차이가 있음.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본 자료는 대한건설협회가 매 분기마다 우편 조사, 인터넷 조사, 현장 조사의 방법을 통해 전국 2,0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중 임금을 조사해 만드는 것임. 건설 현장은 크게 일반공사 직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광전자 직종(전기직종(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정보통신 직종(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현장), 문화재 직종(문화재 보수 시공업체 현장), 원자력 직종(원자력공사 시공업체 현장), 기타 직종의 4개로 나뉜다.